

보도	2023.11.29.(수) 09:30	배포	2023.11.28.(화)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	책임자	국 장 김효희 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 이은영 (02-3145-6702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

I CEO 간담회 개요

- ☑ **일 시** : '23. 11. 29.(수) 9:30~11:00
- ☑ **장 소** :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(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)
- ☑ **참석자** : 금융감독원장, 금융투자협회장,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 23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 총 27명

- 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3.11.29.(수)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'를 개최하였음
 -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자산운용사 CEO와 가지는 두 번째 간담회로,
 - 지난 간담회 이후 개선결과를 전달하고,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자산운용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

II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

- ☐ 금융감독원은 '23.2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' 개최 이후 진행 경과를 공유
 - 업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'23.10월, ESG 펀드에 대한 강화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고,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*'을 완료

* "(별첨2)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" 참조

- 또한,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하였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*

* 「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(11.27. 변경예고 실시)

- ☞ ① 역외금융회사(SPC)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
- ② 출자요청(Capital Call) 방식 역외금융투자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

- ☐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“신뢰 회복”, “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”, “리스크관리 강화”를 당부

- 먼저, ‘투명성을 잃으면 회사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’는 마음가짐으로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객자산을 운용·관리할 것

- 두 번째,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

-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내규, 프로세스와 조직운영 등을 살펴보고 내부정책을 개선할 것

- 세 번째,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

- 특히,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, 펀드성고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치평가에도 힘쓸 것을 당부

- ☐ 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

- 불건전·불법행위의 지속적 단속과 부실 회사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 위주의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
- 판매·운용사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여 좋은 펀드가 잘 팔리는 판매관행 정착 및 유관기관 펀드 정보를 One-stop 통합·관리하여 펀드정보 접근성 제고
-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펀드 운용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을 언급

Ⅲ 참석자 발언 요지

-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펀드시장 활성화 및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,
 - 자산운용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였음

- ※ (별첨1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
(별첨2)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1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